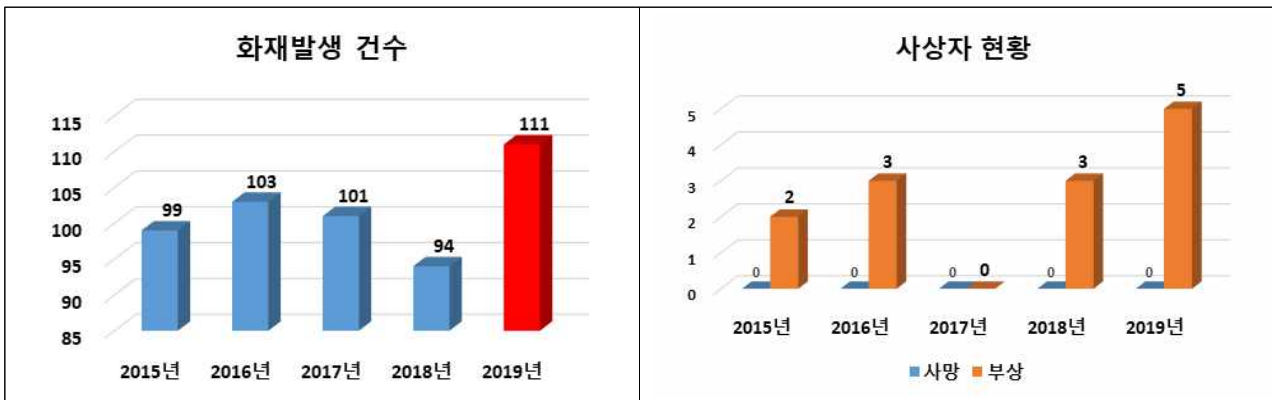


11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

= 동절기 화목보일러(난로) 화재 주의보 =

- 11월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에 의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 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불씨가 바람에 날리거나 연통이 과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- 화목보일러·난로 화재 현황('15년 ~ '19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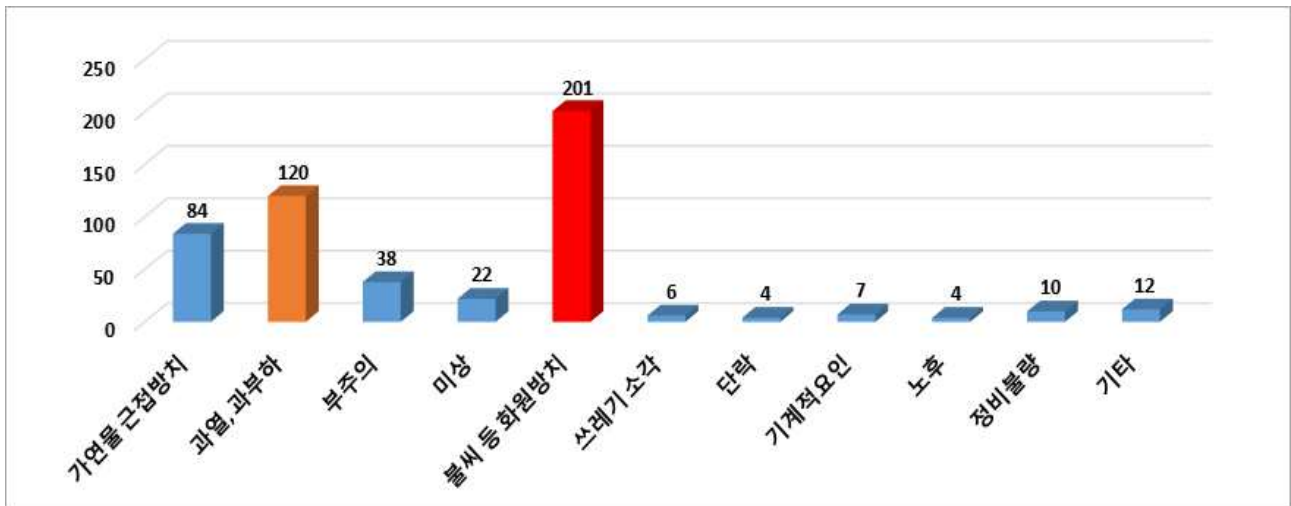


○ 최근 5년('15년 ~ '19년)간 총 50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, 이로 인해 인명피해 13명(사망 0, 부상 13), 재산피해는 약 26억 9천 2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('15년 ~ '19년)

구분	건수	인명피해			재산피해 (천원)
		소계	사망	부상	
계	508	13	0	13	2,692,111
2015년	99	2	0	2	1,207,988
2016년	103	3	0	3	709,213
2017년	101	0	0	0	774,910
2018년	94	3	0	3	1,118,362
2019년	111	5	0	5	853,28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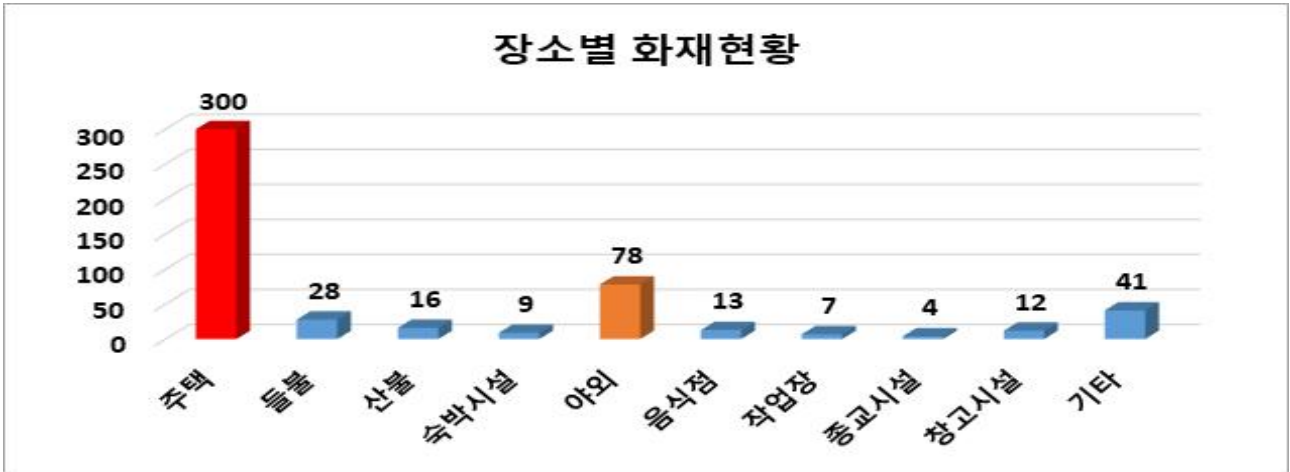
□ 화재원인별 분석('15년 ~ '19년)



-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연통에서 발생하는 불꽃 또는 보일러에서 타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씨 등이 비화하여 발생한 경우가 66%(201건)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재를 처리하는 부분은 산불이나 들불로 변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- 화목보일러(난로) 자체 과열과 보일러에 설치된 연통과열로 인한 화재가 40%(120건)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연통 주변 마감재를 불연재가 아닌 목재·합판 또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다음은 보일러(난로) 주변에 종이박스, 나무 등 가연물 방치하여 발생한 경우가 28%(84건), 부주의 13%(38건)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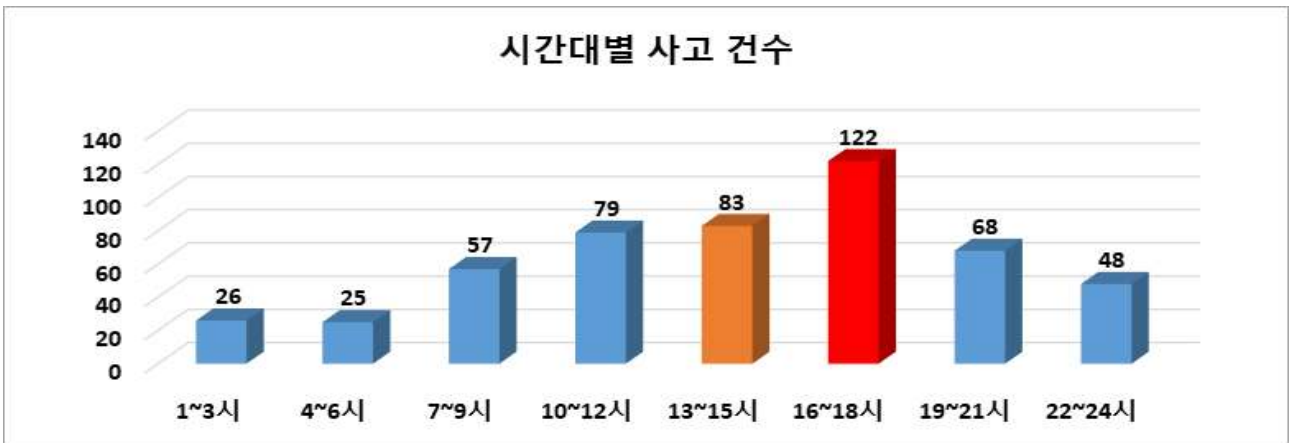
□ 월별·장소별 발생현황('15년 ~ '19년)





○ 월별로 살펴보면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장소별로는 주택이 59%(300건)로 가장 많았다.

□ 시간대별 발생현황('15년 ~ '19년)



○ 시간대별 현황을 보면 16시~18시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지역별 발생현황('15년 ~ '19년)



○ 지역별로 보면 홍천 70건, 강릉 58건, 원주 51건, 횡성 40건, 춘천·평창 34건, 양구 29건, 인제 28건, 고성 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화재예방 요령

-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.6m이상 떨어지고, 건물 밖으로 0.6m이상 나오도록 설치하고 가연성 벽·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.
- 보일러실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- 화목보일러 본체 및 연통 주변에는 가연물을 방치 않도록 주의하고, 연통 안에 타르와 진액, 재가 쌓여 온도 300℃ 이상이 되면 발화하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 준다.
- 보일러 주변에 불씨가 있는 재를 방치할 경우 바람에 의해 산불로 변질 수 있으므로 물로 완전히 소화한다.
- 연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므로 보일러를 가동한 경우 가급적 자리를 비우지 말고 수시로 주위를 감시한다.
-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와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.
- 한꺼번에 많은 양의 나무를 때면 복사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- 화목보일러 점화 촉진제(휘발성)를 인근에 방치하여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.